동유럽 국가들 "광주 中企 제품 GOOD"

광주시 러시아-헝가리 시장개척활동…지역 10개사 참여 고급 인쇄 용지 등 차별화된 기술로 수출상담 2559만불

광주지역 중소기업 제품들이 동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비교적 간단한 기계 장치나 인쇄용지와 같은 특수 소비재 등이 러시아 와 헝가리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지역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 여한 러시아-헝가리 지역 시장개척활동에서 수출 MOU 1649만달러, 수출상담 2559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장개척 활동에서는 시장진입에 필요한 인증을 확보한 기업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선진 국보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시스템비계(추락 예방 설비)를 생산하는 정주산

업통상은 독일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동유럽 지역 독점계약을 제안받았으며, 현지에서 필 요한 인증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고급 인쇄용지를 공급하는 (주)노보인터내셔날 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노보시비르크 등 4개 업체와 고급 종이컵 등 1000만달러의 수출MOU를 체결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신문연합과 가격협상을 통해 그동안 유럽이 독점해왔던 러시아 신문시장에 1000만달러 상당의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1개월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플라스틱엔지니어링을 생산하는 오양물산

은 러시아 업체와 285만달러 상당의 PVC와 폴리카 보네이트 등을 수출하기로 협약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광주지역 기업들이 러시아와 헝가리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수출하기로 협약하 는 등 동유럽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바이어 발굴과 사전 정보 파악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러시아, 헝가리 지역에 지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오는 11월19일 시작하는 브라질과 칠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지역 시장개척활동에도 지역의 역량 있는 기업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기한 트릭아트 구경하세요"

도시철도공사, 농성역에 착시 이용한 대형 작품 16점 설치

광주지하철역에 다양한 트릭아트 벽화가 등 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농성역 썬큰 광장 연결통로 벽면에 '트릭아트 포토존'〈사진〉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트릭아트 포토존에는 가방을 낚아채는 독수리, 명화 속 여인의 목욕, 정열의 투우사, 천사의 날개 등 기발하고 재미난 대형 작품 16점이전시돼 있으며, 조만간 블루스크린 1점도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트릭아트는 착시효과를 이용해 평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작품으로, 이번 트 릭아트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주)티엠커뮤니 케이션의 제작지원을 받아 설치했으며, 이용요 금은 무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일 "트릭아트 포토존이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한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대중교통 활성화를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가급적이면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불로초 "119 동요대회 1등 했어요"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최근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전국119동요대회'에서 불로초등학교〈사진〉가 금상을 수상했다. 문예동산유치원은 은상을 받았다. 초등부와 유치부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각 시·도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초등학교 18개 팀과 유치원 18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불꽃'을 부른 불로초등학교와 문예동산유치원은 가창력과 완성도, 표현력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광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無'

오존농도 0.12ppm이상 때 발령 CNG버스 등 오염저감사업 효과

광주시는 5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오존 예·경 보제 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광주에서는 오존 주의 보·경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으면서 3년 연 속 공기가 깨끗한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하게 됐다" 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저 공해자동차인 CNG 버스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저녹스 버너보급 등 각종 대 기오염저감 사업과 도시 녹화사업을 병행해 왔다.

오존경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발 령되는데, 광주지역은 지난 1997년부터 오존경보 제가 시작된 이후 주의보가 총 5회(2004년 2회, 2006년 1회, 2011년 2회) 발령됐으며, 최근 3년 동 안은 주의보 발령이 없는 상태다.

오존(O3)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이 여름철 강한 햇빛과 광화학 반응으로 발생하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폐 기능저하를 가져오기도한다.

박기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공기가 가장 깨끗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배출가스 상시점검과 대중교통이용의 생활화 등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광주가 맑고 깨끗한 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기오염 저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상에 '두바퀴 도시 혁명'

공직자 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

자전거 투어길 조성과 중국 관광객 유인 프로 젝트가 최고의 공무원 아이디어로 뽑혔다.

광주시 공직자가 시장이라면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 제시한 아이디어 중 종합건설본부 소속 나용선 주무관의 '두바퀴 도시혁명 프로젝트' 가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최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청중 심사단 100여 명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공직자 정책 아이디어 컨퍼 런스' 최종 결선을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두바퀴 도시혁명 프로젝트' 는 광주 주변 주요 하천길과 푸른길을 활용한 자전거투어 길을 조성해 시민 편의는 물론, 중 국 관광객(요우커)을 끌어 모아 세수확충도 가 능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금상에는 '풍영정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을 내용으로 한 생태하천수질과 임태성 주무관과 '더불어 사는 광주 시청개방의 날 운영'을 내용으로 한 상수도사업본부 이강순 주무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은상은 보건환경연구원 박성도 등 3명, 동상은 대중교통과 김희석등 3명이 차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 동안 전문가와 공직자 중심으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정책 개발의 중심 에 시민을 놓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 해 시민심사단을 구성해 심사에 참여토록 했 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알콩달콩 우리마을이 최고'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연 모집

광주시는 5일 "오는 15일까지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 구현'을 위해 이웃과 함께 재미있 게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 마을 자랑질 대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 간 활발한 소통과 상부상조, 협력하는 공동체, 모범적인 마을공동체, 주민 모임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이웃과 함께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마을과 주민모임이며, ▲전통적인 마을 형태가 남아있는 자연부락형 ▲단독주택, 상가 위주의 도심주택형 ▲아파트형 등 3개 부문으 로 구분해 모집한다. 오는 15일까지 관할 동 주 민자치센터나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참가 마을 중 각 자치구에서 1차로 $2\sim3$ 개를 선정하면, 2차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마을 1곳과 우수상마을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내년 마을공동 체 사업비로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며, 우수상 3곳에는 각각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오는 11월4일 열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토론회'에서도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참여혁신단(613-6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